

“인재육성 프로그램 덕분에 재능 찾았어요”



(6) 목포유달초달리분교 5학년 정예주 양

전남도 블루이코노미 비전선포식서 공연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싶어 유튜브 시작
가수·MC·요리사 등 적성 알아보려 노력

“고맙습니다. 몇 번이고 부모님께 인자로 뽐힌 것이 맞는지 여쭙봤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인재라고 해주시니 기쁘지만 부담도 큼니다.” 목포유달초달리분교 5학년 정예주(11)양은 긴장한듯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청중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본인 담당함과 다른 10대 청소년의 모습이다. 정양은 지난해까지 오빠와 함께 목포 달리도의 유일한 학교에 다녔지만, 올해 오빠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달리분교의 유일한 학생이다. 매주 25분 배를 타고 예능영재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노래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전남도가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블루이코노미 비전선포식에서 공연하기도 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꾸준히 연습하고 있어요. 피아노, 플루트 등도 배우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어린이들이 읽은 만화 책을 소개하거나 일상생활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정양은 현재 유튜브 구독자가 40명에 불과하지만, 올해 말까지 4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 시작한 ‘예능영재기움’ 프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자신감이 향상돼 최근 유튜브도 시작할 수 있었다. 집에서 배울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생긴 변화다. “하고 싶은 일은 많아요. 가수, MC나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요리사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분야가 적성에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정양은 자신과 같이 재능이 있어도 섬이나 외진 곳에서 살기 때문에 꽃피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전남도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반가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남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재능이 지역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지역과 도민을 생각하며 이겨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수자원 영·섬유역본부, 물환경협의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최등호)는 최근 전문가와 시민사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영산강·섬진강 유역 물환경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물환경개선을 논의했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제공)

호남대,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와 상호협력 협약



호남대학교 사랑나눔센터(센터장 진경미)는 최근 호남대 학생처장실에서 광산구 자원봉사센터와 상호협력 협약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호남대 제공)

용연학교, 코로나에 미웠던 5·18 기념 콘서트 진행

광주시교육청 Wee스쿨인 용연학교가 최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의식행사 ‘길 위의 노래’를 열었다. 행사는 5월 18일 당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던 행사였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열렸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됐다. 전반부에서는 학생들이 1980년 당시 민중가요를 듣고 노래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하며, 5·18민주화운동의 배경·전개과정·역사적 의미를 돌아봤다. 후반부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민중가요



가수 류의남씨를 초청, 5·18민주화운동부터 2017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운동과 함께한 ‘길 위의 노래들’을 감상하는 콘서트가 진행됐다.

용연학교 운영조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배우고 올바른 역사관식을 가질 수 있도록 5·18의식행사를 기획했다”며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과거 역사적 사건을 현재 자신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Wee스쿨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대안학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화배우 존 웨인 동상 인종차별 논란으로 퇴출

미국 서부영화의 간판 배우였던 존 웨인(1907~1979)의 동상이 인종차별 철폐 시위와 맞물려 대학 캠퍼스에서 8년 만에 퇴출당한다. 10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 스타임스에 따르면 서던캘리포니아대(SC) 영화예술대학(SCA)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해 교내 설치된 존 웨인의 동상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존 웨인은 1971년 플레이보이 잡지 인터뷰에서 “나는 백인 우월주의를 신봉하며, 과거 흑인이 노예였던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흑인, 원주민, 성소수자 등에 편견을 드러냈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찬란한 내 인생(재)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KBS 뉴스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저녁 같이 드실래요(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바다 건너 사랑(재)	00 그놈이 그놈이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호대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정재영의 이슈IN(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능방송센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미니디큐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포비덴러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타지! 따따부따(재)
[8]	30 기막힌 유산	30 날아라 숲돌이 뉴 비기닝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그놈이 그놈이다	30 저녁 같이 드실래요?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40 개는 훌륭하다	50 놀면 뭐하니? 스페셜	20 3주년 출격명 특집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재)	15 나 혼자 산다 스프링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스페셜 35 스포츠특선	00 나이트 라인 3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30 EBS 마스터	17:45 히어로 씨클
07:15 출동! 슈퍼윙스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퓌! 퓌!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뽀로	13:50 다큐 로고인	19:00 형사 가제트
08:00 당동댕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30 최고다! 후기심딱지
08:30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9:45 자이언트 팽TV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해와 해오	20:00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09:00 픽시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페파 피그	15:25 레인보우 루비	▲낙선 기행, 아시아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5:40 뽀뽀뽀 뽀로로(재)	▲신비의 마을을 찾아서
10:30 한국기행(재)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1: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10 픽시(재)	▲ <u>시골 방송 온에어 1부</u>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 <u>됐다, 바다 사나이들</u>
12:00 EBS 정오뉴스	16:40 당동댕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00 EBS 뉴스	22:40 야생의 지구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7:20 개구쟁이 스머프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3일(음 5월 23일 丁巳)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48년생 역량을 발휘하고 정성을 다 해야만 한다. 60년생 갑작적인 체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가 필요한 때이다. 84년생 여건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96년생 성사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22, 86</p>	<p>午</p> <p>42년생 매끄러운 기교가 효과적이다. 54년생 면전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하고 떠돌아도 별짓이 아니니 결코 놀랄 것까지는 없다. 66년생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78년생 지금은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90년생 입장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할 수 있다. 02년생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7, 61</p>
<p>丑</p> <p>37년생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쉽게 연루될 수 있다. 49년생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61년생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73년생 안정적인 구도로 가는 것이 지혜롭다. 85년생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있으니 절만은 이룬 셈이다. 97년생 초기에는 힘들지만 끝내는 이룰 것이니 일관되게 행하라. 행운의 숫자 : 39, 84</p>	<p>未</p> <p>31년생 양 어깨가 무거운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43년생 소란하면 많은 피해가 따를 것이다. 55년생 해를 막아주는 것을 바라던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다. 67년생 나가는 것이 많을 수 있으리라. 79년생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91년생 하늘이 무너져내릴 듯이 구름이 구름이 구름이다. 행운의 숫자 : 24, 62</p>
<p>寅</p> <p>38년생 의외의 방해자가 보이므로 대비해야겠다. 50년생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겠다. 62년생 조금만 더 진력한다면 성과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 74년생 구름이 빠르게 밀려가면서 맑게 개는 이치이니라. 86년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잘 선택하자. 98년생 잠시 숨고르기를 해야 할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66, 78</p>	<p>申</p> <p>32년생 생각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44년생 치밀하지 않으면 헛수고만 반복될 뿐이다. 56년생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간다면 부가 따른다. 68년생 염원에 왔던 바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능률이 오른다. 80년생 영예로움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92년생 걸으려는 뜻을 같이 하는 체지만 속마음은 제각각이다. 행운의 숫자 : 30, 50</p>
<p>卯</p> <p>39년생 자신감이 생긴다. 51년생 주기적인 리듬을 타면서 반복되리라. 63년생 구분을 해주어야만 한다. 75년생 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87년생 일정한 곳에 안전하게 뉘어만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99년생 판세를 확실히 뒤집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1, 70</p>	<p>酉</p> <p>33년생 표리가 부당하니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 45년생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7년생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유용하다. 69년생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으니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만 살기까지 않는다. 81년생 확실하게 수용하는 편이 나은 것이다. 93년생 가까이 다가서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8, 55</p>
<p>辰</p> <p>40년생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다. 52년생 뼈아픈 갈등을 하리라. 64년생 미진하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76년생 가볍게 나타나는 전조를 무시한다면 당황하게 된다. 88년생 만사를 차치하고 과감 하자. 00년생 중요한 시험이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에 체계를 잡아야한다. 행운의 숫자 : 26, 99</p>	<p>戌</p> <p>34년생 값어치를 따져서 판단할 일이다. 46년생 선제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58년생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70년생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82년생 남성에 신경 쓰지 말고 말은 바에 최선을 다하자. 94년생 약간만 더 주력한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0, 68</p>
<p>巳</p> <p>41년생 상대의 마음을 읽고 처신하여야 자연스럽다. 53년생 뒷방전에 앉아서 자신을 먼저 살펴볼 일이다. 65년생 온전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다. 77년생 흥이 변해 길해지니 뜻대로 되리라. 89년생 소홀히 대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01년생 약진하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3, 67</p>	<p>亥</p> <p>35년생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다. 47년생 일시적으로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59년생 고뇌는 삶을 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71년생 강인한 정신과 굳센 추진력이 필요하다. 83년생 예상 했던 바와 틀림없으리라. 95년생 분주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9, 63</p>